

갤러리 엠나인, 단체전 '작은 것의 아름다움'
개최



갤러리 엠나인의 '작은 것의 아름다움' 단체전이 5월 3일 열린다. 사진은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국대호 작가의 작품. (갤러리 엠나인 제공)

문화복합공간 갤러리 엠나인이 5월 3일부터 29일까지 단체전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30여점을 공개한다. 강지혜, 국대호, 김강용, 김슬기, 김인옥, 김재이, 김지희, 방혜자, 이예림, 이혜민, 한지희 작가가 전시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김지희 작가는 롯데홈쇼핑 '엘라이브'에서 원화 작품을 선보이며 대중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5월 3일 진행되는 이 방송은 갤러리 엠나인에서 현장 생중계된다.

갤러리 엠나인 관계자는 "미술품 수집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술을 좋아하는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갤러리에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는 것 역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갤러리 엠나인의 '작은 것의 아름다움' 전시는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윤은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